



발도장을 찍어라 - 중국 항일유적 탐방기

만주 벌판에서 역사를 외치다

아무리 역사에 문외한이더라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첫 머리에 나오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카의 명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를 다루는 학문인 역사에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 또한 빼 놓을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결국 현대인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거나 재창조되지 않는 과거의 사건은 역사일 수 없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청사의 입구.

그런데 E. H. 카가 정의를 내리지 50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날의 학생들은 역사에서 ‘과거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를 두고 ‘대화’하기 힘든 요즘 대학생의 머릿속에는 취업 걱정만해도 8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지난 8월, 61돌을 맞는 광복절을 전후해 중국에 남아있는 항일 유적지 일대를 탐방했다. 전국 35개 대학, 36명의 대학생 기자와 함께한 이번 탐방은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8월 11일부터 7박 8일간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옌지(延吉), 룡징(龍井), 무단장(牡丹江), 하얼빈(哈爾濱) 등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항일 유적지를 둘러보는 6000km의 대장정이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오사야항청사의 흔적.

느릅은 중국 땅에서 고된 피난의 흔적처럼 산재해 있는 항일유적지 20여 곳을 둘러보는 빼듯한 일정 속에 탐방단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칭이었다. 덥고 습하기로 유명한 충칭은 중국 3대 화로(火爐) 도시 중의 한 곳. 8월 중순의 폭염 덕에 더 참기 힘들었던 자극적인 향신료 냄새를 뚫고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청사로 향했다. 이곳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탐방단 외에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드물었다. 연화지청사의 한 관계자는 “한 때는 일본에 만 명이 넘게 찾아왔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한 팀도 오지 않을 때도 있다”며 “1인당 한화 2600원 정도 하는 입장료로는 관리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오사야항청사에 비하면 연화지청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건물 원형을 집작하기 힘들 만큼 훼손된 이 곳에는 중국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비석만 역사의 현장을 증명하듯 오롯이 서있었다. 오사야항청사 주변을 둘러본 박혜민(동서대 영상매스컴 2002)기자는 “이곳이 정말 김구가 『백범일지』 하권을 저술했던 곳이 맞을까 싶다. 골목 깊숙이 위치해 있을뿐더러 남아있는 건물이 곧 무너져 내리거나도 할 것 같아서 몇 년 뒤에도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탐방기간 동안 둘러보았던 항일유적지 중 훼손이 심각한 곳은 이 곳만이 아니었다. 현재 미원이라는 국영음식점이 들어서 있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건물은 음식점을 통해 2층 내부로 들어서면 어둡어둡한 복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복도 간간히 자취가 남아 있는 집무실도 문이 굳게 잠긴 채 방치되어 있었다. 탐방단 일행은 “중국 현지에 있는 항일유적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지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주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천지명(국가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옛터.

보훈처 공훈심사과)지도교수의 설명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처럼 잘 알려져 있는 항일 유적지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았다. 건물이 낡고 규모는 연화지청사보다 좀더 작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종종 눈에 띄었다. 이곳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덕에 상하이 주변의 재개발 바람에도 곳곳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단.

또한 자싱(嘉興)시에 위치한 김구 선생 피난처는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나선 덕분에 실제로 건물이나 거리 모두가 1930년대의 분위기를 간직한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중국식 건물이나 돌로 꾸며진 보도는 여타 항일 유적



▲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김구선생 피난처.

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본의 감시망이 좁혀짐에 따라 김구 선생이 피신해 있던 거처에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본군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바닥에 뚫어놓은 탈출 구멍이 보존되어 있어 그의 지난한 도피생활을 생생히 말해주는 듯 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잘 꾸며져 있는 이곳조차도 찾는 사람이 적어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주했던 방.

이 외에도 중국에서 둘러본 많은 유적지들은 대부분 먼저 쌓인 채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거나 무더위 속에서 변변한 냉방시설 하나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항일 유적지도 방치되고 심하게는 철거당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국외는 어떨까. 상황이 열악한 항일 유적지를 찾을 때마다 탐방단원 모두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주 찾는 수밖에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찾은 국의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만큼 근대사에서 중요한 항일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드물어 존재위기에 놓인 곳이 대다수다. 역사를 지금 여기에 되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끊임없이 반추하는 것이라면 이대로는 미래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현재에 기억되지 못하는 역사는 미래에도 살지 못하므로, 우리가 과거와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한, 역사도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하연 기자 scoop@mediakhu.ac.kr



현장에서

탐방단의 마음을 움직인 시 한수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풀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층 강(剛)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雨露)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剛)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탐방 셋째 날, 윤봉길 의사의 의거지로 유명한 상하이의 홍커우(虹口)공원 내 기념정자인 매정(梅亭)에 걸려있던 그의 시다. 연변 사투리가 묻어나던 안내원은 전시물을 설명하던 도중, 시의 전문을 읽어주었

다. 정자 내에 마련된 전시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재잘거렸던 탐방단 일행들 모두 윤봉길 의사의 시를 듣는 동안만큼은 침묵을 지켰다. 안내원의 낭송이 끝나자 백경희(장원대 보건외과학과 2005)양은 “그의 행동과 그의 글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는다. 특히 홍커우 공원에서 듣는 ‘이 길을 택하였다’는 말은 비장하게까지 들린다”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또 그의 시 뿐만이 아니라 거사 직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짧은 유서에서도 윤 의사의 한결같은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유골을 찾아와 슬한 잔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의 지독한 ‘연행일지’에 모두 감동한 것일까, 일정의 막바지에 이르러 탐방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발 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홍커우 공원이 41.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장 인상 깊었던 항일 유적지로 꼽혔다. 예나 지금이나 말과 행동이 저토록 일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하연 기자



▲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청사 건물 전경. 건물 내 전시실 안에는 이곳을 배경으로 찍은 요인들의 사진이 종종 눈에 띈다.



전라남도 장성군 신촌마을의 무인가게와 주민들

여기는 신촌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무인가게’입니다

처음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이 가게가 제대로 운영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양심가게’가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뭐 있겠느냐고 말하는 신촌마을 사람들— 그 믿음이 있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